

2019년 도 제24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19년 12월 26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이 일 형 위 원
조 동 철 위 원
고 승 범 위 원
신 인 석 위 원
윤 면 식 위 원(부총재)
임 지 원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장 호 현 감 사	유 상 대 부총재보
	정 규 일 부총재보	이 승 헌 부총재보
	박 종 석 부총재보	서 봉 국 외자운용원장
	이 환 석 조사국장	민 좌 홍 금융안정국장
	이 상 형 통화정책국장	김 현 기 금융시장국장
	양 석 준 국제국장	신 운 경제연구원장
	박 영 출 공보관	채 병 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성 광 진 의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39호 - 금융안정보고서(2019년 12월)(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96조에 의거 금융안정보고서(2019년 12월)(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금번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과 위원협의회

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금번 보고서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의 성장세 둔화,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등의 여건하에서 가계, 기업, 그리고 금융기관의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경기둔화 및 금융시장 불안이 동시에 나타나는 실물·금융의 복합충격 상황을 가정하여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평가하였음.

이어서 12월 12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먼저 다수 위원들은 금번 보고서가 현 시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주요 현안들에 대해 균형있게 분석하였다고 평가하였음.

일부 위원은 주요 현안들 간의 연계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쓸 것을 당부하였으며, 다른 일부 위원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 상황 및 복원력과 관련하여 그동안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 등이 주요 관심 사항이었으나, 앞으로는 기업부문의 리스크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과 국내시장 간 동조성 및 연계성이 강화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모형에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통한 대외충격의 파급경로를 세밀하게 반영할 경우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중소기업 중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50%에 가까운 상황에서도 중소기업대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소기업대출 증가의 세부 내역 및 관련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부동산금융 익스포저(exposure)에 대한 분석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지표들을 찾아

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으며, 다른 일부 위원은 이번처럼 기존에 다루었던 주제를 다시 분석하는 경우 선행 분석의 주요 내용과 새로운 분석의 차별성을 언급하는 등 연구의 연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의 미분양주택 상황과 영향에 대한 분석이 시의적절하였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건설회사 규모별로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등 동 주제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또한 일부 위원은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분석과 관련하여, 최근 국내 은행의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체율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출로 인식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동 대출의 리스크 요인을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일부 위원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연체율 동향을 통해 위기발생 가능성이 예고되었던 것처럼 공실률 등이 선행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러 가지 지표들 간의 연계성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다음으로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 현안 분석 중 연령별 가계부채 상황 및 평가와 관련하여, 고연령층의 부채문제는 고령화 진행 등으로 인해 계속 이슈가 될 수 있는 주제이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일부 위원은 연령별 가계대출 비중 등을 주요국과 비교해 볼 경우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한 다른 일부 위원은 고연령층 가계부채의 누증요인을 분석할 때 인구고령화 효과를 통제하고 여타 요인의 기여도를 보다 세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국내 수익률 추구 동향 및 잠재리스크 점검과 관련하여, 수익률 추구 투자의 절대 규모보다는 금융기관 총자산 대비 비중 등 상대적 규모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주요국과 달리 회사채 시장이 우량채권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추구 행태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확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일부 위원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수익률 추구는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주제이며,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특히 새로운 현상이 발생할 때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효과가 함께 나타나게 되므로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하였음.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고 설명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보고서가 광범위한 주제에 걸쳐 시의적절하고 유익한 분석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만큼 동 보고서의 활용도를 보다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은 앞으로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당행의 평가와 메시지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금융안정보고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당행의 관점(view)을 연속성 있게 가져가는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음. 아울러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금융안정 정책에 대해서도 당행의 입장을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덧붙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금융안정보고서(2019년 12월)(안)(생략)

<의안 제40호 -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6조에 의거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수립·공표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12월 16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일부 위원들은 위원협의회 당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신용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더라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경우 일부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또한 일부 위원들은 통화신용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을 중심으로 좀 더 간결하게 기술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고 설명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6조에 의거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붙임과 같이 수립·공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생략)